



잠과 죽음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며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고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 나라의 비유들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은 포기와 선택입니다. 나쁜 것 또는 덜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더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늘 나라를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에 비유하셨을 때에는,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시고는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저 역시도 세상 종말에 제가 의인으로서 하늘 나라의 그릇에 담겨질까, 아니면 악한 자로 가려내어져 불구덩이에 던져져 버림을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세상 종말 또는 인생의 끝에 어떻게 될지 미리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낱줄과 씨줄을 어떻게 채워나가는지를 보면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짜이는 전체 나의 삶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인생 전체의 마지막이 각자의 종말이고 죽음이라면 하루 단위의 종말은 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의 마지막인 잠자기 전의 습관을 잘 살펴보면 나의 인생의 끝도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밤의 여신(너스)이 쌍둥이를 낳는데, 각각 잠의 신(히пно스)과 죽음의 신(타나토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잠과 죽음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할 즈음에 기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잠들 때, 그 잠(하루의 죽음)은 평화로운 하늘 나라의 꿈자리가 됩니다. 반대로 걱정과 미움, 분노, 집착 속에서 잠들 때, 그 하루 단위의 죽음은 편치 않을 것입니다. 하루 단위의 죽음을 잘 맞이하는 사람은 인생의 죽음도 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그릇에 어떤 것들을 담을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담고 나쁜 것들은 버리면 됩니다. 거룩한 것들을 선택하고 악한 것들을 포기하면 됩니다. 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을, 하루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나라를 향해 매일 나아갑니다.

성무일도로 끝기도를 할 때 끝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 짓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아멘.”



박인수 요한 신부 | 함안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1열왕 3,5-6 7,7-12
화 답 송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제 2 독 서	로마 8,28-30
복 음	마태 13,44-52 또는 13,44-46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19

진주지역 교우촌 (1)

조선의 두 번째 사제는 최양업 신부님. 1849년 4월 15일 상하이(上海)에서 사제품을 받고 그해 겨울 입국했다. 곧바로 교우촌 방문에 나섰으며 서양 신부들이 가지 못한 산골짜기를 샅샅이 훑었다. 양산梁山과 동래東萊까지 왔던 그는 인근에 교우들이 있다는 정보를 접하면 가능한 방문했다. 최양업 신부는 경상도 남부지역 첫 사목자였다.

1859년까지 10년간 최양업 신부는 경상도 전역을 담당했다. 이후 1864년까지 5년간은 다블뤼(Daveluy 安敦伊) 신부가 맡는다. 두 번째 사목자였다. 1864년부터는 리델(Ridel 李福明) 신부가 담당했고 이때 병인박해가 있었다. 박해가 시작되기 전 순교자 구한선(다두)과 함께 거제도를 방문했던 사제는 리델 신부였다. 알려진 사실이다.

박해 후 경상도는 로베르(Robert 김보록) 신부가 맡는다. 1886년 경상도 첫 본당인 대구본당 주임 신부로 발령받지만 여러 사정으로 대구엔 들어가지 못했다. 대신 칠곡 신나무골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2년간 머물렀다. 이곳에서 로베르 신부는 마산교구가 속한 서부 경남 공소들을 방문하고 기록을 남겼다.

리델 신부는 1861년 입국했다. 당시 그는 교우촌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갖고 있었다. 지도를 처음 만든 사람은 김대건 신부로 알려져 있다. 지도에는 교우촌 지역 153곳이 기재되어 있었고 서부 경남에 속한 지역은 8곳이었다. 거제, 고성, 통영, 남해, 사천, 소촌(現 文山邑), 칠원(現 龜山面), 의령(現 富林面)이다.

1861년이면 병인박해 전이다. 이 시기 남해안에 교우촌 지역 여섯이 있었다니 놀라운 일이다. 더구나 거제, 통영, 고성, 남해, 사천, 구산면은 연결되는 라인이다. 그러나 이 교우촌들은 병인박해와 무진박해(1868년)를 만나면서 없어지거나 흩어져 버린다. 남해에 교우촌이 있다는 기록은 이후 찾을 수 없다. 무진년戊辰年 박해는 세칭 오페르트 굴총掘塚 사건 결과다. 유태계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Oppert)는 당시 실권자였던 대원군의 부친(南延君) 묘를 도굴한 뒤 시신(屍身)을 담보로 통상을 관철시키려 했다.

그러나 실패한다. 그런데 사건에 프랑스 선교사와 신자들이 가담된 것이 발각되었다. 격노한 대원군은 해안지대 신자 색출을 엄명한다. 이것이 무진박해다. 당연히 남해안에도 검거 열풍이 불었고 교우들은 흩어졌다. 오페르트 사건 무대는 충남 예산이었다. 중국에서 배를 타고 아산만으로 들어와 삼포천에 상륙한 뒤 도굴 작전을 펼쳤던 것이다. 그런데도 경남 해안지대 박해가 심했던 것은 경상도의 유림儒林이 격분했기 때문이다.

조선 말기 영남지역은 유학이 강했고 보수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양반 무덤이 도굴 당했다는 건 경악할 일이었다. 더구나 서양인과 천주교인이 함께 행동했으니 박해는 척화斥和와 동일시되었다. 대원군은 유림의 동조로 쇄국을 강화했고 곳곳에 척화비를 세웠다. 남해안 교우촌은 이렇게 해서 자취를 감췄다.

무진박해는 대원군 실각(1873년)으로 흐지부지되지만 바닷가 교우촌은 회복되지 않았다. 많은 교우들이 잡혀갔고 육지로 흩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대원군의 몰락은 외세의 간섭으로 이어졌고 구미 열강은 조선에 통상을 요구했다. 결과가 1882년부터 체결되기 시작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의 통상조약이다. 덕분에 선교사의 공적 활동은 가능해졌다. 로베르 신부의 1883년 보고서(최초의 경상도 교세통계표)는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었다. 소촌공소는 교우 78명, 예비자 2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무진박해 이후 서부 경남 피난 교우들의 중심지는 소촌(문산)공소였던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죽음

이주연 레지나 시인/ 가톨릭문인회

시간은 괴물처럼 아주 서서히 우리의 생을 야금야금 먹어치운다. 젊었던 부모님을 늙게 하고 병들게 하고 돌아가시게 했다. 고왔던 연인을 어느새 늙은이로 변화시키고, 사랑스럽던 아이들도 서서히 그 과정을 겪게 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나온 생은 각자의 죽음을 향해 걸어온 시간의 누적 층이라 할 수 있겠다. 죽음을 자연의 이치로 여기며 담담하게 받아들여 애쓰고 있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잃은 상실감은 극복하기 힘들다. 이런 생명의 유한성으로 인한 고통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실존적 경험이다.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고통이 없다면 삶의 본질에 대해 숙고할 일도 별로 없을 것이다. 생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거만한 태도로 얼마나 단순하게 살고 있을까 싶기도 하다.

나는 외할머니의 죽음 즈음에 가톨릭에 입교할 마음을 굳혔고, 엄마의 죽음 즈음에 쉬고 있던 가톨릭의 문을 다시 두드렸다. 가족의 죽음 앞에서 나약한 내가 기댈 데라곤 종교밖에 없었다. 지금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돌아가신 외할머니, 나의 부모님, 시댁 부모님의 영혼을 위한 기도다. 물론 아침기도 중에 잠시 스치며 떠올릴 뿐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쉼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지, 그들의 영혼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다.

남편을 일찍 저세상으로 떠나보낸 외할머니는 혼자서 어린 두 딸을 키워야 했다. 그때부터 주님과 성모님은 외할머니가 기댈 유일한 의지처였던 것 같다. 덕분에 강건한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고 매일매일 기도의 힘을 믿으셨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신부님이나 수녀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물론 집에서 봉성체를 많이 받으셨다) 마산 구암동 집에서 좀 떨어진, 창녕의 어느 요양병원으로 가신 지 며칠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족 중 유일한 신자였던 내가 새 신자였던 터라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 어찌할 줄 몰랐던 나는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귀에 대고 외워드렸다. 그랬더니 혀가 아래로 처진 채, 죽은 듯 옆으로 누워계시던 할머니가 힘을 다해 기도 손을 공중으로 계속 들어 올리려 하셨다. 이 순간의 영상은 내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다. 죽음의 순간에 주님과 성모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이 모습을 본 나는 할머니의 마음이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신 거라고 생각한다.

종교가 없는 나의 가족과 지인들은 이런 내 생각을 존중해 주지만 불신하는 눈치다. 그럴 때면 내 느낌을 설명하거나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 함께 얘길 나눈다. 보이는 삶과 보이지 않는 삶이 있다. 이 둘은 독립된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삶을 꾸릴 것이다. 하루하루를 살며 주어진 일을 하고 성당에 다니지만 열심이지 않은 것이 보이는 나의 삶이다. 그럼에도 돌아가신 가족에 대해 어느 정도 안도하는 것, 영혼의 안식처를 믿고 싶은 것, 이것도 내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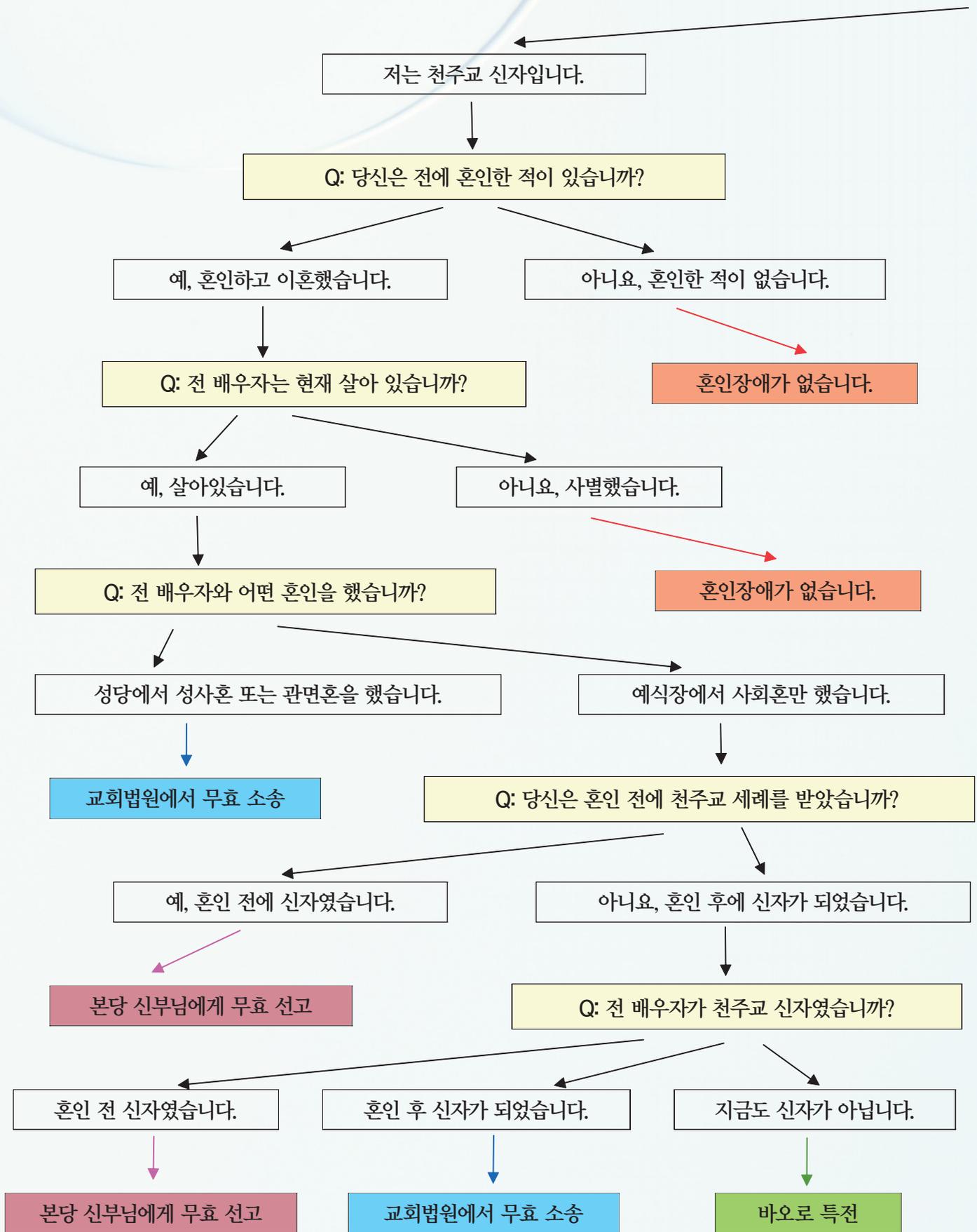


우리농 나눔터 활성화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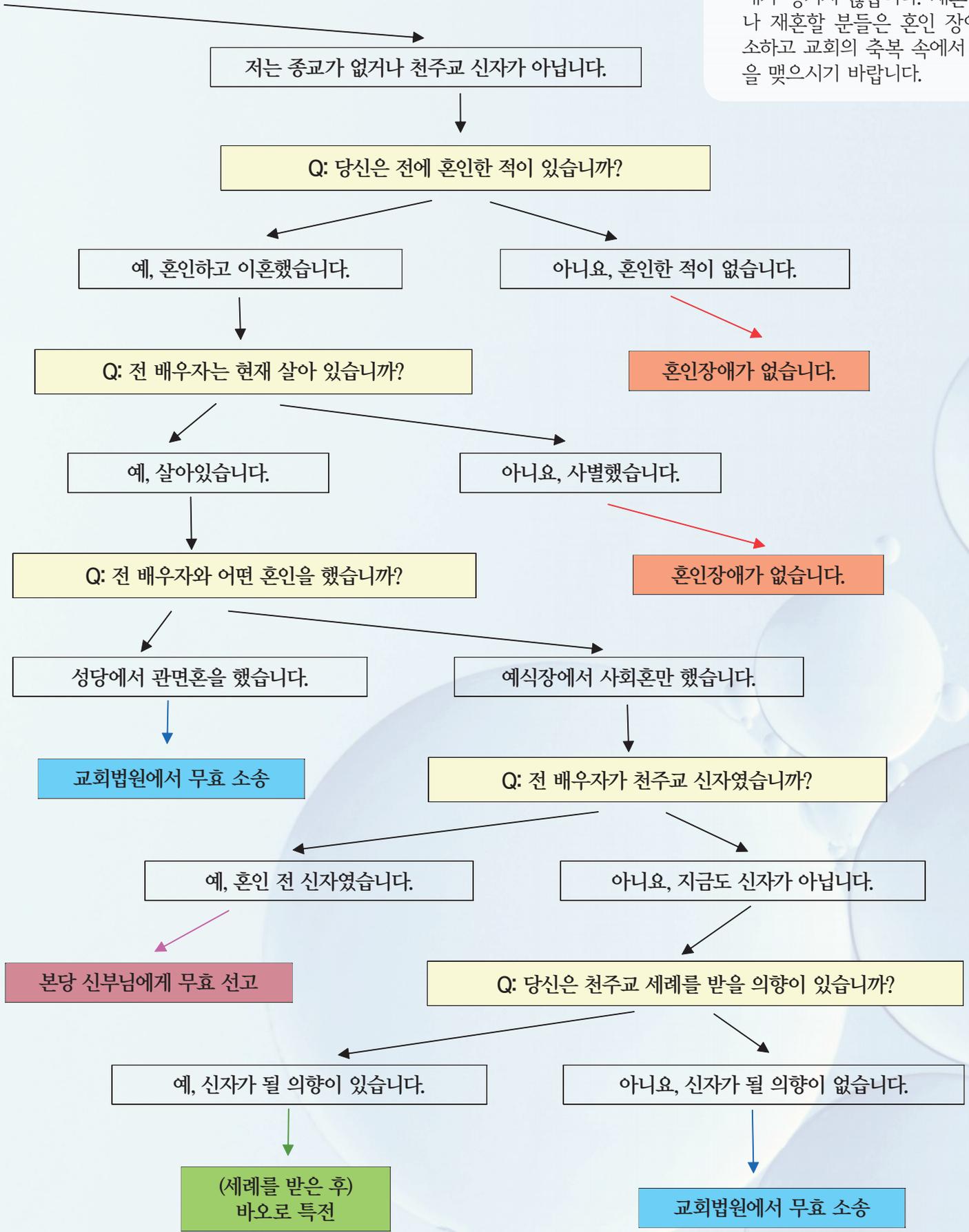
농민 주일을 맞아 강형섭 미카엘 신부(가톨릭 농민회 담당)는 고현성당(7월 8일, 9일)과 태평동성당(7월 16일)에서 미사를 봉헌하였다. 그리고 교구 내 우리농 나눔터가 있는 각 본당에서 우리농 물품 안내를 위한 홍보행사에 생활공동체 봉사자들이 함께하였다. 강형섭 신부는 “땅과 밥상, 사람과 세상, 자연 생태계를 살리는 우리농 운동에 많은 신자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인사를 전하였다.

혼인 장애 해소를 위한



혼인 무효를 위한 자가 진단

※ 혼인의 모든 상황을 이 표로 진단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나 혼인할 상대 배우자의 입장에서 체크를 해 보시면 대략적인 혼인장애 진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혼하고 재혼하지 않으면 혼인 장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재혼을 했거나 재혼할 분들은 혼인 장애를 해소하고 교회의 축복 속에서 교회혼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선종 사제
조규성(베드로) 신부
2021년 7월 31일



기억할 선종 사제
장병화(요셉) 주교
1990년 8월 3일



기억할 선종 사제
박주선(안토니오) 신부
1995년 8월 3일

교구장 서리 동정

꾸르실로 강의
일시: 8월 4일(금)
꾸르실로 미사
일시: 8월 6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교구/본당

예비신학생·여학생 예비성소 하계연수
일시: 7월 31일(월)~8월 1일(화) 1박 2일
장소: 산청 성심원(남학생),
수정의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여학생)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8월 수어미사는 없습니다.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수) 19:30 회원동성당
창원: 1주(월) 19:3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비대면: 1주(월) 20:00 화상연결
문의: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도박문제로 힘드십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Mr.정)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센터 운영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타

4050 신앙대회

일시: 8월 20일(주일) 10:00~17:00
장소: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한국본부 대경당(부산)
주최: ICPE 선교회,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한국본부
문의: 010·2289·6150

청주교구 성령대회

일시: 9월 16일(토) 09:00~17:30
장소: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강사: 김용렬 신부, 한연흠 신부, 오웅진 신부
찬양: 고영민 안드레아 찬양팀
문의: 043·213·9103, 010·4400·1344

예수회센터 사전녹화 강좌(상시 개강)

내용: 꿈을 통한 영적 치유-홍기령 교수
·사복음서의 특징과 영성적 가치-임숙희 박사
·영신수련 열 두 마당-이근상 신부
·가톨릭 사회교리-전주희 수사
·삼위일체의 하느님-이규성 신부
·영의 식별-권오면 신부
·일상생활 안에서의 영신수련-이근상 신부
기간: 각 12주간 수강/
E-메일과 문자로 동영상 링크 발송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하와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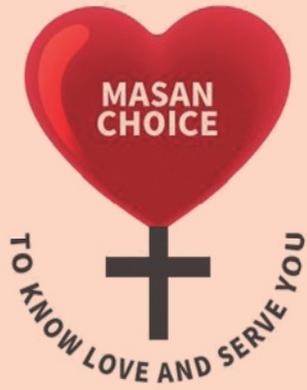
일시: 매주(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제	문의
교구	7월 31일(월) 19:00	중앙동성당	하느님 사랑	윤영수 스테파노(前 전국봉사회 회장)	박혁호 미카엘 신부	010·5247·9900
청년	매주(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8월 6일(주일) 10:00	서울 본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p>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p>	<p>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p> 	<p>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꿀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절,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p> 	<p>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p> <p>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아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p> 
---	---	---	--

마산 선택 주말을 소개합니다.



20~30대 미혼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택 주말은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말 동안 또래 청년들과 함께 자신들의 고민과 불안에 대해 나누고, 가족 및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진정으로 속하는 것에서 오는 자유로움을 체험하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가진 본래의 '나'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54차 선택 주말 안내

일시: 8월 18일(금)~20일(주일)까지 2박 3일

장소: 마산 성혈 영성의 집(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 688)

대상: 20~30대 미혼 남녀 누구나

신청: 8. 2.(수)까지 QR코드로 접수

참가비: 12만 원/ 계좌: 경남은행 593-07-0022836 예금주 (재)마산교구천주교유지재단

준비물: 미사준비, 필기구,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개인컵, 마스크 등

문의: 010-3050-0830(윤가희 힐데가르트)

▶신청 접수 마감 후 참가 시간 및 일정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추후 안내)

제17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사무처 홍보부(51796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현로 72)
- 마 감: 9월 27일(수)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프로세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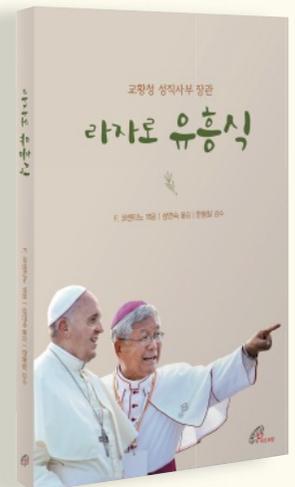
라자로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사목적 비전

교황청 공무원 소속인 신부가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을 인터뷰하여 엮은 책이다. 유 추기경의 생애와 영성, 교회와 사제직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다. 올해 초 이탈리아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라자로 유흥식: 동쪽에서 번개가 치듯이」(Lazzaro You Heung-sik: Come la folgore viene da Oriente)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은 '우리 시대의 증인들' 총서에 속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추천 글로 시작하는 이 책의 1~2장은 추기경의 개인 역사를, 3~5장은 사제 양성, 사제직, 주교직에 관해 다루고 있다. 끝부분에는 '오늘날의 교회에 관한 열 가지 열린 질문'과 엮은이의 맺는 글을 실었다. 각 장은 엮은이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라자로 추기경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이기에 쉽게 읽힌다.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의 어린 시절과 사제성소, 유학 시절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을 수 있고, 일상에서 만나는 하느님의 손길과 그에 응답하는 길을 만날 수 있다. 추기경의 영적 통찰과 사목적 성찰을 통해 시노드 여정을 걷고 있는 교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볼 수 있다.



- 엮은이: F. 코센티노 신부
- 옮긴이: 성연숙
- 감수: 한동일
- 출판: 바오로딸출판사



엘리 사제와 예언자 사무엘(1사무 2,11-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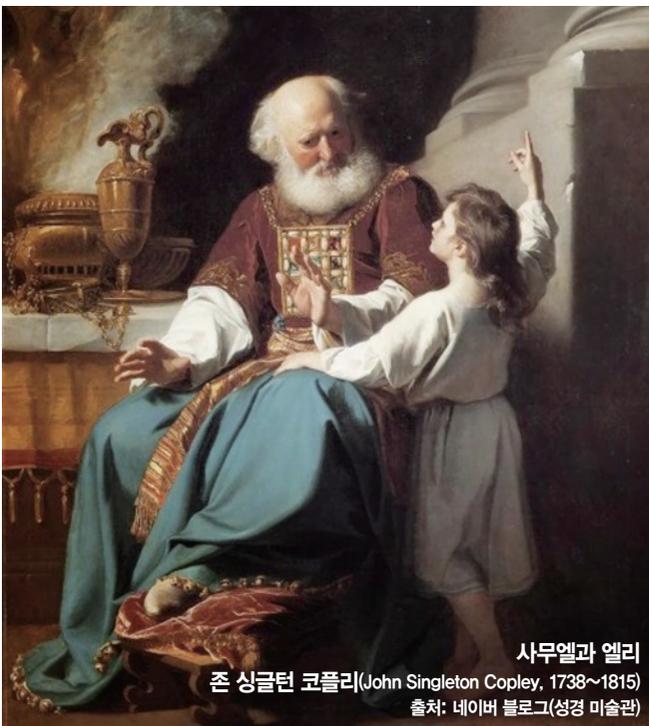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지난번 순례 때 우리는 사무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손의 탄생과 비슷하게 사무엘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적적인 탄생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태어날 아기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 계획을 펼치실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의 유년기에 대해 듣게 됩니다. 아이가 젖을 땔 무렵이면 약 세 살 가량이 됩니다. 이토록 어린 나이에 성소에 봉헌된 아이는 과연 어떻게 자라날까요?

이번 순례지는 어린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실로 성소입니다. 실로 성소는 당시에 계약의 궤가 모셔져 있던 곳으로 에프라임 지파의 상속지에 위치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사제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성장기를 언급하는 이 단락은 엘리 집안의 하강과 사무엘의 상승을 대조하듯이 보여줍니다. 먼저, 성경의 저자는 엘리의 아들들의 반복되는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불량한 자들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사제에게 돌아갈 몫을 챙김으로써 주님의 제물을 함부로 다룹니다. 엘리는 매우 연로하였기에 성소를 관리하는 실권이 그의 아들들에게 있었던가 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느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그들의 권위를 남용합니다. 급기야는 그들이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관계한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엘리가 그들을 책망하였으나 그들은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주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뜻을 품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어린 사무엘은 주님과 사람들의 총애를 받으며 자라납니다. 어느 날 하느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엘리의 집안이 망하게 되리라는 신탁을 전해줍니다. 예언자가 전해 준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의 조상들은 사제 집안으로 선택되었고, 사제의 의무는 '제단에 오르는 것' '향을 피우는 것'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에봇을 걸치는 것'인데, 그들은 사제직을 남용하고 주님께 바친 희생제물을 업신여기고 있다. 그런데도 엘리는 주님보다 자식들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엘리 집안은 사제직에서 밀려나고 하느님께서 새롭고 충실한 사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어지는 이야기(1사무 3장)는 엘리 집안이 몰락하리라는 예언과 대조적으로 어린 사무엘이 하느님의 계시를 들음으로써 예언자의 반역에 오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환시나 계시에 대한 체험이 없었던 사무엘은 하느님의 궤가 있는 성소에서 자고 있다가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소리가 엘리가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는 그를 부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돌아가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시자 이번에도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는 이번에도 돌아가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다시 엘리에게 달려가자 엘리는 그제서야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고,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이때 사무엘이 들은 말씀은 엘리 집안에 내릴 재앙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은 이 메시지를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전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에 사무엘은 그가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하느님께서 줄곧 그와 함께하셨고, 그가 한 말은 모두 이루어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사무엘은 단에서 브에르 세바에 이르기까지, 곧 전국적으로 주님의 믿음직한 예언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서는 실로에서 거듭 나타나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의 성장기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과 엘리
존 싱글턴 코플리(John Singleton Copley, 1738~1815)
출처: 네이버 블로그(성경 미술관)